광주 고용률 6개월 째 감소…"9월이 더 걱정"

*전년 동월 대비

호남지방통계청 발표 '8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취업자 1년 전보다 광주 6000명 줄고 전남 4000명 늘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 광주 30대·전남은 50대 타격 커

"9월이 더 걱정이다."

지난 달 광주 취업자가 6000명 감소하면 서 6개월째 고용 감소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지표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반영되지 않아서 고용한파 위력은 9월에 실감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광주 ·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는 광주 74만7000명·전남 98만2000명으 로, 각각 1년 전보다 6000명 줄고 4000명

광주지역 취업자는 지난 6월(2000명 증 가)과 7월(2000명 //)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8월 들어 또다시 취업자가 큰 폭으 로 감소했다.

특히 광주 고용률은 지난 3월(-1%포인 트)부터 8월(-0.9%포인트)까지 6개월 연 속 '마이너스' (-)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전남 고용률은 지난 달 0.8%포인트 증 가했지만 전달(1.5%포인트) 수준에 미치 지 못했다.

전남 8월 취업자가 2000명 증가했지만, 이는 겸업을 해온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경 기 불황으로 본래 농어업 생업에만 집중하 게 되면서 생긴 반대급부였다.

전남 농림어업 취업자는 1만8000명 (8.8%) 증가했지만, 나머지 사업·개인·공 공서비스업(-1만8000명), 전기·운수·통 신·금융업(-6000명), 건설업(-2000명) 등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실 업자가 각각 1년 전보다 2000명, 6000명 줄면서 실업률이 감소했다"며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구인·구직활동 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했다.

기업은 채용을 하지 않았고, 미취업자들 도 고용한파로 인해 제대로 일자리를 찾아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광주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비 경제활동인구'는 1만9000명 늘어난 50만 5000명으로, 2017년 1월(51만2000명)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52만9000 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줄었지만 전달 보다는 1만4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광주지역에서는 30대, 전 남에서는 50대 타격이 컸다.

취업자 증감 실업자 수 추이 49.2 2 2020 -19.5-27.7 -27.4

-39.2

-35.2



광주 30대 취업자 감소 폭은 1만1000명 으로, 10대와 40대(각 -1000명) 감소 폭 의 10배를 넘겼다. 20대와 5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00명씩 증가했고, 60대 취 업자는 4000명 늘었다.

전남지역은 50대 취업자가 무려 1만명 감소했다.

이어 20대(-4000명), 30대(-1000명) 감소 폭이 컸고, 60대(1만6000명), 10대· 40대(각 2000명)는 취업자가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광주지역 취 업자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6000명·3.8%)을 제외한 나 머지 대부분 산업 취업자가 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5000명(-1.6%), 광공업 3000명(-2.8%), 건설업은 3000명(-3.6%)이 취업자가 줄었다.

호남통계청 측은 "도소매·숙 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유일하 게 증가세를 보인 것은 이쪽산 업이 회복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해 이맘때 워낙 경기가 좋지 않 아 상대적으로 고용이 잘된 것 처럼 보인 것"이라며 "거리두 기 강화와 재택근무 여파에 따

라 가전제품 구매와 배달 수요 증가가 관련 취업자 증가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달 전국 취업자 수는 또 줄어 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8월 취업자 는 270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4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3.1%로, 8월 기준 2018년(4.0%) 이 후 최고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75.81(-26.10) → 금리 (국고채 3년) 0.915 (-0.034)
- ➡ 코스닥 869.47 (-8.82) 👚 환율(USD) 1189.10 (+2.70)

광주은행, 올해 신입행원 30명 공채 인원 80% 이상 광주·전남 인재 선발

14~22일 원서접수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올해 신 입행원 채용일정을 발표하며 인원 80% 이상을 광주•전남 인재로 채울 계획을 밝

광주은행은 오는 14일~22일 원서접수 를 시작으로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를 실 시한다고 9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3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매해 50명 넘게 신입행원을 채용해왔지 만 코로나19 여파로 내점고객이 줄면서 올해 규모는 다소 축소됐다고 광주은행 측은 설명했다.

모집 분야는 중견행원(4년제 대학 졸 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초 급행원(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이다.

중견행원은 지역인재, 일반인재, 디지 털·ICT, 통계·수학으로 나눠 모집하며, 이중 지역인재 및 디지털·ICT 부문은 광 주·전남지역 출신(고등학교 또는 대학 교)만 지원가능하다.

지난해와마찬가지로온라인상지원서 를 접수한 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NCS·일반상식), 면접 등의 절차를 거 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단 필기 전형과 면접은 사회적 거리두 기 방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전체 채용인원 80% 이상 을 광주·전남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하 고,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자를 대상 으로 초급행원을 모집해 취업기회를 확 대할 계획이다.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는 유튜브 채 널 '광주은행TV'에서 비대면 채용설명

송종욱 행장은 "코로나 19로 기업 채 용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고 용시장 침체가 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열정과 패기, 도 전정신을 지닌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 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연체 채무자들 빚갚기 힘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하세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채무자 방어권 확대

연체 채무자들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 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 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은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고 있다.

과 협상력을 고려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조정 교섭업 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

스스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부족한 전문성

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했다.

채무자에게 추가 피해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교섭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100만 원으로 규정됐다. 담보가 없는 채권이어도 채권액이 5억 원 이상 고액이면 채무조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관원 낙과 줍기 봉사활동

도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8일 태풍 '마이식'과 '하이선' 피 해를 입은 나주시 금천면 배 농가들을 잇따라 방문해 낙과 줍기 등 일손을 〈농관원 전남지원 제공〉

상반기 문 연 영세·중소 사업체 18만8000곳 카드 수수료 평균 34만원·650억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에 문을 연 영세·중소 사업 체 18만8000곳이 모두 650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평균 34만원꼴이 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상 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 급 내용을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 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 자 가운데 상반기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 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8 만8000곳이다. 폐업가맹점 약 4000곳도 포함됐다.

환급 금액은 총 649억7000만원이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 수 수료율을 적용받으나 신규 신용카드 가 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 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 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 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상반기 신규 신용카 드 가맹점 약 21만개의 89.6% 수준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86.6%가 연 매출 액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이다.

영세가맹점에 환급되는 금액은 461억 2000만원으로 전체의 71% 수준이며, 중 소가맹점(연매출액 3억~30억원) 환급 액은 188억5000만원(29%)이다.

주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농축산물 판 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 환급 대상이었다.

환급액은 이달 11일까지 입금된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 템'(cardsales.or.kr)이나 여신금융협 회 콜센터(02-2011-0700)에서 10일부 터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수수료 등 세부 내용은 신한・삼성・ 롯데·하나·현대·비씨·KB국민·NH농협 등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 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스: 062-222-0195







문화를 품은 건축물②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빼어난 건축미 입소문 신안 압해읍종합복지회관



목공, 주얼리, 도자기 등 체험 양림 펭귄마을 공예특화거리

예향이 만난 이 사람 KIA 타이거즈 마운드 고졸 루키 샛별 정해영



문화 트렌드

5060 세컨드라이프

'가난한 꿈부자'

레슬링영웅 김원기 3주기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4)

화가 곽인식의 할매곰탕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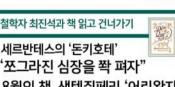
'슬기로운 집콕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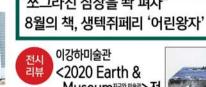
한복 디자이너·전통 복식연구가 김혜순 "한복짓기는자기다움찾아가는것"

우리 땅 우리 문화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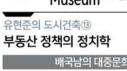
예향 초대석

'불법이 머문' 천년 고찰 속리산 법주사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세계가 열광, 한류 스타의 어제와 오늘

